

강진군 마량면, 경로당 코로나 예방·동절기 대비 현장방문

마스크 착용·거리두기·개인식기 사용 준수 당부
전열기·난방시설 등 화재예방 점검·애로사항 청취

마량면(면장 강한성)은 지난 1일 복지회관 및 경로당 17개소를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등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재확산 추세가 높은 코로나19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어르신들이 안전을 위해 추진됐다.

각 경로당을 방문한 공무원들은 상시 마스크 착용, 식사할 때 거리두기와 개인식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전열기와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한성 면장은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 우리 지역에서는 단 1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도록 국민 한분 한분이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이 모여 생활하시는 데 불편하더라도 수시로 환기를 시키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지”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신안군,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선정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신안군이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30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재가 장애인의 합병증 예방과 자

립생활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14개 읍·면 보건지소 한의사와 방문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한 팀이 되어 장애인 관련 건강상태 파악, 식생활·운동 등 생활습관 지도, 약물복용

관리 등 대상자 맞춤형 한의약방문건강관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관리를 위해 한의사가 통증 정도를 평가하고 침·뜸 시술 등으로 참여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구의 고령화와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완화를 위해 한의약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사업 신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마음건강 두드림 특별교실 운영

청소년 우울증 극복·자살예방 비대면 프로그램

무안군은 지난 9월부터 11월 까지 관내 10개 중고등학교 학생 2,500여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극복과 자살예방 프로그램인 마음건강 두드림 특별교실을 운영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5년째 자살률 1위라는 심각성을 알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

등 청소년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다류영상물 번주곡을 학교 자체적으로 시청하도록 하였고,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무안군은 아동 우울척도 검사

를 병행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 아동에 대해 2차 개입·관리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의 말 한마디와 작은 관심이 외롭고 어려운 친구의 다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장흥군 여성자원봉사회, 장애인 세대 청소 봉사활동

15명 참여 대상자 실내의 쓰레기·재활용품 등 분류 처리



장흥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조국선)는 지난 1일 장흥군 여성자원봉사회(회장 이성숙)에서 장흥읍 장애인 세대를 방문하여 청소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장흥군 여성자원봉사회원 및 마

을 주민 등 15명이 참여하여 대상자의 집 실내외에 쌓인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 고물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장흥읍 금산1구에 거주 중인 장애인 A씨(61세)는 마을 주변에서 수집한 고물을 짐마당과 집 뒤편에 쌓아두고 생활해왔으며 생활 쓰레기는 거주지 주변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성숙 장흥군 여성자원봉사회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보성군, 겨울철 복지위기구가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보성군은 겨울철을 맞아 복지위기구를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복지 위기구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발굴 대상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겨울철 계절형 실업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실직 일용근로자,

보험료 체납가구,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가구 등이다. 군은 복지 위기구구를 발굴하기 위해 읍면 복지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희망드림협의체, 복지이장, 복지기동대, 유관기관 및 지역 인적 안전망과 협업하여 위기구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굴된 대상자는 긴급 지원,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차상위 등 공적 지원과 함께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며,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성=김덕순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

